

[Chapter One]

p. 10

Aha!
Culture

종합 예술, 발레

발레라는 말은 '춤을 추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발라레(ballare)'에서 유래했어요. 이탈리아 궁정 연회에서 발생해 프랑스 궁정으로 옮겨간 발레는 루이 14세가 왕립무용학교를 설립하면서 더욱 발전했어요. 발레는 대사 없이 음악, 팬터마인, 의상, 장치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극무용이에요. 발레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동작은 바로 '발끝으로 서기'인데, 이는 발레의 가장 기본 동작이지만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하려면 힘든 훈련이 필요해요.

p. 16

Aha!
English

There is so much to learn! 배울 많은 것들이 있어요!

to부정사(to + 동사원형)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위 문장에서는 앞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to learn(배울)이 much(많은 것들)를 꾸며서 '배울 많은 것들'이란 뜻이 돼요.

ex. It is time to go to bed. 잠 잘 시간이다.

p. 18

Aha!
Culture

발끝으로 설 수 있는 푸앵트 슈즈

푸앵트 슈즈는 여성 무용수들이 신는, 흔히 토슈즈라고 알려진 발레용 신발을 뜻해요. 발가락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 발끝으로 서는 것이 가능하고 끈으로 발목을 감아 매게 되어 있어요. 발끝의 딱딱한 부분은 아교(동물성 접착제)를 넣어 단단하게 처리한 것이에요. 발레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연습용 발레 슈즈를 신고, 훈련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푸앵트 슈즈를 신을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신게 되면 발에 무리가 가게 돼요.



p. 20

Aha!
English

I was asked to study ballet in New York. 나는 뉴욕에서 발레를 공부하겠냐는 요청을 받았다.

I asked ~라고 하면 주어인 내가 능동적으로 '요청했다'라는 말이지만, I was asked는 주어인 내가 '요청을 받았다'는 수동적인 행동을 나타내죠. 여기서는 과거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was asked가 되었어요.

ex. He is called Tom. 그는 탐이라고 불린다.

[Chapter Two]

p. 29

Aha!
English

We eat in a restaurant if there's time. 만약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식당에서 먹는다.

if는 '만약 ~라면'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문장에 따라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ex. You can go with me if you like. 만약 네가 좋다면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p. 30

Aha!
English

We never know what is coming next.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질문을 하는 문장인 의문문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요. What is coming next?(다음에 무엇이 올까?)는 원래 의문문인데, 여기서는 명사처럼 know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ex. He never knows who is watching. 그는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Chapter Three]

p. 43

Aha!
English

So are our tools. 우리의 도구들도 무겁고요.

So am I. 라는 문장 들어봤나요? 앞에 나온 문장에 동의하며 '나 역시 그래.' 라는 뜻이에요. '역시' 라는 뜻으로 쓰인 부사 so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서, 주어(our tools)와 동사(are)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러한 현상을 도치라고 해요. So are our tools. 는 앞에 나온 Our gear is heavy. (우리의 장비는 무겁다)에 호응하여 '우리의 도구들도 무겁다' 라는 뜻이에요.

ex. A: I am very nervous. 나는 너무 떨린다.

B: So am I. 나 역시 떨려.

p. 44

Aha!
Science

순간적인 폭발, 위험한 백드래프트

백드래프트 현상은 화재가 발생한 폐쇄된 공간에서의 순간적인 폭발을 말해요. 지하실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연소(불이 붙어 타는 것)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가 문을 열거나 창문을 부수면서 산소가 갑자기 공급될 때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 발생해요. 거의 꺼진 줄 알았던 불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커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폭발력이 매우 강해 소방관이나 실내에서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p. 46

Aha!
English

Please don't waste our time this way. 제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세요.

'~하라, ~하지 마라' 처럼 명령하는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문장 맨 앞에 써요. 그런데 이 앞에 please를 붙이면 부탁하는 부드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please는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을 만들어주는 magic word(마법의 단어)라고도 해요.

ex. Please stand up. 일어서 주세요.

[Chapter Four]

p. 57

Aha!
Science

편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목적지만 입력하면 길을 알려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길 안내뿐 아니라 주변의 명소나 갈 만한 곳을 함께 알려주기도 하죠. 이 내비게이션 기술은 배에서 처음으로 쓰였어요.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지도 데이터에 GPS 신호를 받아 현재 자동차의 위치를 화면으로 보여줘요. GPS는 24개의 인공위성으로 고도 20,000km에서 지구로 신호를 보내 위치를 파악하게 해줘요.



p. 59

Aha!
English

It is fun to see the flambé! 플람베를 보는 것은 재미있어요!

영어에는 진짜 주어, 가짜 주어가 있어요. 진짜 주어가 길어지면 문장 맨 뒤로 보내요. 이 문장에서는 to see the flambé가 원래 주어인데 길이가 길어서 문장 뒤로 갔어요. 대신에 가짜 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썼어요.

ex. It is fun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Chapter Five]

p. 65

Aha!
English

Steven has been cooking for twenty years. 스티븐은 20년 동안 요리를 해왔다.

영어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일을 표현하는 시제를 '현재완료'라고 해요. 그 동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말하고 싶을 때 'have been(be의 과거분사) + 동사 원형-ing'로 쓰면 돼요. 여기에서는 '요리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has been cooking이라고 썼어요.

ex. Sarah has been playing the piano for two hours. 사라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p. 69

Aha!
Culture

요리사 모자의 유래

요리사들이 쓰는 모자를 '토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위생을 위해 써요. 프랑스에서 헨리 8세 때, 수프에 떨어진 요리사의 머리카락 때문에 헨리 8세가 요리사를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때부터 청결을 위해 모자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1800년대 중반 마리 앙투안 카렘이라는 요리사는 말단 요리사부터 총주 방장까지 직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자 높이가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모자의 높이에 따라 상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p. 69

Aha!
English

They look cool, too! 그것들은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

look은 '~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런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해요. 지각동사에는 look 외에도 feel(~한 느낌이 든다), sound(~처럼 들린다), taste(~한 맛이 나다), smell(~한 냄새가 나다) 등이 있어요. 이 동사들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 해요.

ex. That sounds great. 그것은 좋은 것처럼 들린다.